

순정 이

오늘의 화답송
“주님, 저의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저의에게
구원을 주소서.”

제 1 독서 : 아모 7,12-15 제 2 독서 : 에페 1,3-14 복 음 : 마르 6,7-13



산다는 것은

박 중 신 신부/쌍교동 성당 주임

1. 헛되고 헛된 세상

구약성서의 전도서에서 설교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 땅 위에서 되어가는 꼴을 보면 모두가 헛된 일이다.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다.”(전도 12, 9:8,14)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더더욱 전도서의 가르침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힘있고 돈있고 배경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큰 소리치고 부정부패는 여전히 힘없는 백성들만 변함없이 고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무슨 개혁이니 구조조정이니해도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주의는 극에 달해가는 느낌입니다. 윗물도 맑지 않고 아랫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저마다 자기이익과 밥그릇을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물리는 모습들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2.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들씩 짝지어 파견하셔서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모습입니다. 함께 모여 세상에 평화를 주고, 피곤하고 가슴아픈 인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며 아픈 상처를 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성당은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미움과 분열이 생기는 것일까요? 교

회는 본래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잘난 체하고 고집부리고, 남을 무시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제 탓이오”를 외치며 가슴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그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흘림으로 죄와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심판합니다. 심판은 하느님의 몫이 아닙니까? 아르스의 성자 요한 비안네 신부는 말씀하십니다.

“본당 신부가 성인이라면 그곳 신자들은 열심히 산다. 신부가 열심히 하면 교우들은 미지근하게 산다. 신부가 미지근하게 살면 교우들은 이상 숭배할 정도로 냉담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부여 받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 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1베드 2,9)

3. 끝으로 오늘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농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서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합시다. 특히 도시 신자들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서 땅을 지켜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도록 합시다.

순정 이 산책

무죄

“하느님, 저는 정말 고백할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죄가 되느니라.”
“아, 그렇군요. 하오나 하느님,
지금 한 말 빼고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죄가 되느니라.”
“또 걸렸다.”



성찬경 세자 요한/시인 · 정준용 아킬로/화가



농민의 땀방울

김 인 봉(대전 안드레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폐업으로 온 나라가 휘청거렸다. 정부에서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겠다고 하자 의사들은 병원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울부짖으며 병원문을 두드렸으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 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잇달아 숨졌으나 오히려 강도를 높여가는 의사들의 투쟁에 정부는 무릎을 꿇었다.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합의한 것이다.

그러자 약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섰다. 의약분업을 전제로 오랫동안 논의하여 합의한 약사법을 시행 해보지 않고 재개정하면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의사들은 참의료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의료계 탄압 중지와 약사법 독소 조항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폐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약사들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약사법 개악 음모 분쇄를 결의하였다. 의사와 약사의 피 터지는 밥그릇 싸움에 서민들은 아플 세라 전전궁궁이니 고래싸움에 애꿎은 새우등 터진다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한편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는 은행원들이 총파업을 들고 나왔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듯이 사회에 돈이 돌지 않으면 마비 상태에 빠진다. 따라서 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전산망이 작동을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농민들이 낮은 농산물 가격에 불만을 품고 농사를 작파하면 어떻게 될까. 멀리 갈 것 없이 최근 북녘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면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서서히 굶어 죽어 간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지구상의 60억 이상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아니다. 의사도 약사도 은행원도 아니고 요즘 한참 뜨는 인터넷 관련 종사자들도 아니다. 농민들이다. 그들은 남들이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나 녹음방초 우거진 골짜기에서 땀을 식힐 때 논과 밭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요즘을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정보를 모르면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먹을 거리가 없으면 뒤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 수 없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흙에서 나는 먹을거리가 입으로 들어가야 산다. 흙에서 먹을거리를 장만하는 사람들을 농민이라고 하고 오늘이 그들의 수고와 은혜를 기리는 농민주일이다. 하느님께서 농민의 땀방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날을 보고 싶어하실 것이다. 왜? 당신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인간을 농민이 먹여 살리니까.

농민을 위한 기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짝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송영진 신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소리만 하던 예레미야 예언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고 하여도, 뱃속에 간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예레 20:9) 모진 박해 속에서도 결코 예언을 멈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를 생매장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워한 것은 예언자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지금도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고 예언자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배운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자존심만 더 내세울 뿐입니다. 그들이 힘으로 예언자의 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살

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저희에게 구원을 주소서.”

저는 이번에 사제로서 양심을 걸고, 의료대란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죽이겠다'는 의사들의 협박전화로 피해서 피신하듯 휴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죽이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세상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죽음을 늘 접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박해받는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카로운 쌍날칼'(묵시 1:16)같은 주님 말씀을 들어도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족속들'(마태 3:7)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저희에게 구원을 주소서.”

* * * 성 소 모 임 * * *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성바오로딸 수도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바 오 로 딸 서 원	(063) 252-3398
사랑의 씨튼 수녀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3) 281-0441
살레시오 여자수도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나바위 성당 수녀원	(063) 861-8759
곤벤티알프란치스코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 793-2070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3) 244-0094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3) 858-4724
경로수녀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 243-1440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3) 284-2276
동정성모회(전주,익산)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 성당 수녀원	(063) 232-5004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삼천동 성당 수녀원	(063) 226-3487
살레시오 수도회(남자)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62) 512-0332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 674-1251
전교 가르멜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3) 274-9262
인보성체수도회	매월넷째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3) 284-3231

마리아 전교자 프란치스코수녀회

세계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일시 : 8월 3일(목) 오후 5시
 ~8월 6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경남 신창 성심원 교육관
 · 문의 : ☎ (02) 865-8174

대천해수욕장 해변미사

· 평일, 토요일 : 오후 8시
 · 주일 : 오전 9시, 10시 30분
 오후 8시
 · 주소 : 충남 보령시 신후동 2056
 · 장소 : 대천해수욕장 성당
 · 문의 : ☎ (041) 934-7758

젊은이 여름피정

· 대상 : 자연과 함께 피정을 원하는 미혼여성
 · 일시 : 8월 12일(토) 후 4시
 ~8월 15일(화) 후 1시
 · 장소 : 강원동 양양 라베르나의 집
 · 회비 : 2만원
 (아제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 문의 : ☎ (02) 912-5006
 H · P 016-777-0241

롯데홈·이시스 샵 대리점

냉·온수기 판매 및 대여
 햄 선물 Set
 업소용 단무지 중점
 김 의 철(가브리엘)
 소 순 진(크리스티나)
 문의 : ☎ (063) 858-4903-4
 FAX (063)-858-4903
 H · P 011-684-7999/4904

제5회 농민주일 담화문

“은 땅은 본래 하느님의 것입니다.”(레위 25,23)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7월의 셋째주일은 농민들의 대회년이자 한국 주교회의가 제정한 농민주일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맞는 농민주일은 고된 농사일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농민들에게 한마음으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점차로 그 가치가 망각되고 있는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상대적인 농가소득 저하, 만성적인 농가부채, 지속되는 농촌붕괴 현상 등 여러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금년 봄 구제역 파동과 밀, 보리 등 겨울작물의 흉년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우리 농촌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은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함이 없이 물질적 풍요와 편리만을 무한정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정보화와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물결은 선진국 중심의 안정과 번영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모든 인류의 진정한 발전과 복지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제3세계의 농촌 붕괴현상 역시 지구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명과 환경 파괴’ 현상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면, 지구 생태계 파괴, 기상이변, 자원 고갈, 국가 간 빈부격차의 심화, 수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식량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위기현상에 대해 한국 교회가 제시하는 대안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농촌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

제임을 깨닫고, 생명중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며, 도시와 농촌에 공동체를 건설하여 도·농이 공동체적으로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생명·공동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회년의 기본 정신은 “하느님의 드높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하느님의 것이며(신명 10,14), 인간은 단지 그것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는 회년이 되면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레위 25,8-55). 그것들은 곧 본래의 창조 질서, 평등과 조화와 공생의 질서로 돌아가라는 촉구입니다.

대회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라는 부르심에 충실하기를 다짐해야만 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현대사회는 그 생활양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않는 한 결코 생태학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13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극단적인 편리함과 효율성의 추구를 벗어나 생명중심적인 문화를 건설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해 나가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농민주일을 맞이하여 농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며, 농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 ‘새 하늘 새 땅’을 위한 대안운동으로 다시금 자리가 매겨지고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0년 제5회 농민주일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장 봉 훈 주교

농민사목

대희년의 정신으로 농가부채 해결하자

정기환(베네딕도)/가톨릭농민회 총무

지난 7월 1일 완주군 운주면 수청리공소 대희년을 맞아 농민회에서 모처럼 마련한 회원교육이 있는 날이다. 그러나 예년 기온을 넘는 더위와 완주지역의 농업현황상 담배와 수박등 과채류농사에 한참 분주할 시기여서 얼마나 회원들이 모일지 교육을 준비한 군협의회 임원들은 내내 불안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시간전부터 50여명이 도착했다. 간단히 국수로 요기를 하고 예정보다 30분 일찍 교육이 시작되었다. 개회식이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자기 소개시간이다. “어디사는 누구인데 무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하는 식이다. 사회자가 “빛은 얼마나 되나요?”라며 부채현황을 소개할 것을 주문하였다. 많고 적음을 떠나 빛없는 농민이 없었다.

봄가뭄으로 인한 밀·보리 농사의 흉작,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 구제역 파동 등 크나큰 재해와 오렌지로 대표되는 수입농산물의 과다 수입등으로 인해 육류와 과채류 등 제값을 받은 농산물이 한 품목도 없을 정도로 올해 농가경제는 최악의 어려움 속에 그간 누적된 농가부채는 이제 농민형제들의 삶의 기반을 통채로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농가부채는 정부통계상 총28조 원(호당 1,835만 원)이지만 농민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35조 원(호당 5,753만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빚들을 지게 되었을까? 농가부채의 원인과 문제, 해결방향은 무엇인가?

농가부채는 무엇보다 역대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가 주 원인이다. 잘못된 농산물 가격구조, 무차별적인 수입개방,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지원과정,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정비리 등으로 13조 원이라는 거액을 농업에 투자하고도 그것이 그대로 농가부채로 전환되는 형국이 되었다. 일종의 부실 투자인 셈이고 따라서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채권자인 정부에 있다.

예를 들어 시설원예는 적극적인 정부 권장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격폭락현상으로 시설 투자비 등의 자금이 그대로 부채화되었다. 상호금융의 경우도 열악한 농업환경을 고려할 때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고 농업 생산 체계에 비해 상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오히려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외국의 경우 농업금융구조를 보면 장기대출 70%, 단기대출이 30%를 차지하나 우리의 경우 장기대출 30%, 단기대출이 70% 차지) 이렇듯 농정실패로 인해 누적된 농가부채는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편중정책, 위기관리능력부재, 정경유착 등이 야기한 IMF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 되었다.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반면,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농업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부채상환은 커녕 생계 조차 위협받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농가부채의 특수성은 무엇보다 연대보증에 있다. 채무농가의 파산은 해당 농가의 생존 뿐 아니라 곧바로 연대보증을 선 이웃농가, 나아가 전체 농가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농촌경제 전반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농가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는 나아가 식량자급이라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위협함으로써 국가적인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또 연대보증하에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대리변제를 요구하고 농지를 차압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농촌 고유의 공동체적 신뢰와 협력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농촌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파산, 야반도주, 자살 등이 속출하고, 연대보증인까지 대납, 파산하여 마을사람들이 한꺼번에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제 농가부채는 농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이 계속 유지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해결은 생명, 식량, 환경 등 사회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IMF하에서 재벌, 금융, 중소기업에 부채탕감 및 구조조정 명목으로 100조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원금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조치를 취한점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연체이자 탕감, 원금과 이자의 상환유예와 장기 저리자금으로 전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단기 농축산물 가격보장 정책을 수립하여 부채누적 상황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통하여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농업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농가부채해결운동에 농민, 나아가 전체 국민적 동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가부채의 원인이 채권자인 정부에 있고, 해결 또한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지만, 전 국민적 동의로 이를 재촉하는 것은 창조질서 회복등 대희년의 정신을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레위 25,23)



농민회 교육을 다녀와서

이 광 석(바오로)/교구농민회장/조촌동 본당

7월 3일 - 농촌에서 제일 바쁜 모내기철을 지내고 요즈음은 논밭리는 시기여서 조금은 한가롭다. 7월 1~2일 가톨릭농민회 완주군협의회 농민교육이 있어 완주군 운주면 수청공소에 다녀왔다. 요즘 고산본당 관내에서는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도둑을 맞는다. 으스한 산지에 차를 대 놓고 인삼밭을 몽땅 털어 갔다며 시름들을 토로한다. 당한자만의 고통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저마다 자기 일인양 흥분들하신다. 농촌의 공동체가 살아 있는 현장이다.

첫 강의를 맡은 광주교구 농촌사목 전담 최민석신부님의 말씀이 뿌듯이 가슴을 덮혀 온다. 농민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이다. 거기에 모인 50여명의 농민형제들이 머쓱해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나부터도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 본당에서 열심히 신자들을 보면 주눅이 드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부님 왈 “괴산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정일우 신부님 말씀이 농부가 새벽에 일어나 자기 논 한 바퀴를 둘러 보고 돌아와 아침을 먹게 되는 데 작물들을 둘러 보는 그 시간, 그 마음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닮은 관상기도 자체”라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안도하고 공감하며, 하느님 곁을 떠나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할 것을 다짐해 본다.

7월 6일 - 평협제단체장 연수 결과

오늘은 교구평협에서 보낸 우리 전주교구 단체장님들의 1차 연수 결과 보고서가 배달되었다. 평신도가 바라는 교구사목방향, 평신도가 바라는 사제상, 도·농본당간 협조 및 연대 방안, 효율적인 선교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에도 농민인지라 도·농본당간 협조 및 연대 방안의 내용이 한 여름 더위를 식혀

주는 소나기가 되어 지친 마음을 적셔 온다. 내용인즉 1. 가톨릭농민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2. 도·농본당간 자매결연의 실질적 활동 노력 3. 농산물 직거래의 제도화(전담부서 조직, 가격계약제 실시, 도시본당 소비자 조합결성 등) 4. 제단체간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상호연대를 위한 홍보(본당별 특산물 등)이다. 이를 위해 농촌본당 지원책 강구, 교구조직내 농촌본당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기구조직, 평신도 제단체의 총괄 담당기구 설치(예 : 평신도 사목국)가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참으로 우리 농민들은 순박하다. 목구멍에서 쓴내가 풀풀나고 힘든 일에 허리가 휘고 갈퀴손이 되어도 그 손 한번 잡아주며 눈 마주치는 자식들 앞에서 시름 삭혀가는 넉넉한 부모님들이다. 도시와 농촌의 만남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도시의 문제는 농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고, 농촌의 문제는 도시에서 찾아 내야 마땅하다는 확신이 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2000년 대회년에 우리 민족에게 큰 은총 주시고 계심을 저희는 압니다.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고 연이어 50년 장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황님께서 교회를 대신해 그간의 잘못을 온 세상에 속죄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권위적인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시는 농촌에, 농촌은 도시에) 그간의 무관심과 잘못을 속죄하여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그리하여 금년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추수감사제와 농민의 대회년 잔치가 도·농이 하나됨을 확인하고 신명나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 CT촬영, X선 일반 및 특수촬영
초음파촬영, 유방촬영, 골밀도검사
성인병검사, 종합검진, 임상병리검사
원장 : 박인숙(아나다시아), 정진영
터미널옆 금암로타리
☎ 278-1312~3

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

· 장, 단기 할부판매
· 중고보상 판매
· 조율 및 운반전문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 252-0103-4
284-6085/284-9989
(구. 서중로타리 동원증권 맞은편)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희 민(루가)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미 산 에 너 지

심야전기보일러, 전기온수기, 태양열온수기
난방 절감기 확인 설치비, 사후관리(AS)등
국내외 전매이커(설치 및 AS)의 상담을
친절히 해드립니다
강 영 기(레오)
☎ 468-1480
H · P / 011-671-3601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광고 우 창 기 획
간판, 네온, 싸인타, 잔널, 현수막,
상패, 기념품, 현황판
신 경 수(오 셉)
박 진 영(마리아)
☎ 241-6991, 278-6991
H · P 011-684-6991

황 소 의 스프레 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24시간 예약, 상담 · 용달사업부
즐거운 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 노 명 규(켄리교)
☎ 224-3324/271-2400

여성 전문 검진 크리닉
전북방사선과의원
· 진료안내 - 전신컴퓨터 단층촬영, 유방암
검사, 칼라 초음파검사, 골다공증검사, 신장
특수촬영검사, 변비검사, 일반 X선검사,
종합건강검진, 위장관 투시 촬영검사
송 하 숙(야고버)
임 여 섭(루치아)
효자동 주택은행 3층
☎ 228-6060

익산 문구 도매 센터
(교우 특별 할인)
문구, 사무용품 전문. 도·소매
대형마트식 매장
신규개업 상담환영, 배달가능
대표 : 유 영 민(베 드 로)
김 주 영(올리안나)
익산시 영동동 533
☎ 843-3731/011-658-0638
FAX : 852-3731

교구·제 단체 소식

1. 전주 사회교정 사목후원회 미사 : 7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2. 청년성서 연수 봉사자 피정 : 7월 21일(금)~22일(토), 해월리
3. 가르멜 재속회 월피정 : 7월 23일(주일) 오후 2시, 용머리

'우물기도 모임' 안내

생명의 샘인 주님을 만나는 '우물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희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중앙성당에서는 신자, 사제, 수도자들이 모여 성사와 찬가로 주님을 찬미하는 '우물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떼제 성가, 성서말씀 봉독과 묵상, 침묵으로 이어지는 기도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묵주기도 3억단 바치기운동

전국 평협에서는 대희년 평신도대회의 일환으로 '묵주기도 3억 단 바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모든 평신도들이 기도운동에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도지향>

- 하나되게 하소서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 새 천년기 새 복음화를 위하여

<기간> 2000년 6월 25일~2001년 1월 5일

* 지난 7월 8일(토)에 선종한 **故 송 규두**(안토니오, 동산성당) 형제의 장례예절에 오셔서 기도해주신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교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망인 박금화(마리아나)

- 장손 송용하(미 카 엘)/ 차남 갑석(라 파 엘)
3 남 정용(프란치스코)/ 4 남 문석(스테파노)
5 남 일경(스테 파노)/ 너 명숙(레 아) 올림

군산경희한의원

원장 : 원 상 연(루카)
원장 : 윤 원 식
나운동 롯데사거리 기업은행 2층
☎ (063) 461-1075(한방치료)
7585(치료바로)

가톨릭 사회복지법인 작은 예수회 기쁜 우리 샘물

기쁜 우리 샘물 봉사수익금은
고통받는 장애인을 위해 쓰여집니다
주문 : ☎ 완산점 283-5230
덕진점 241-3888
군산점 466-8744

(유) 레 인 보 우 무지개 광고기획

간판/현수막/상패/기념품
김 창 식(스테파노)
가톨릭센터 사거리에서 전고방향
☎ (063) 231-3200
FAX (063) 231-3237

리틀브렌 코아점

단체런닝 T는 리틀브렌에서
(6세~16세)
장 재 식(베 드 로)
원 숙 웅(가타리나)
수선도 가능합니다
☎ (063) 252-3325
H·P/011-683-3283

세 심 검 도 관

13년 전통과 37년경력의 박사과정 1명,
석사 2명의 지도자와 3명의 연구지도
유아, 초, 중, 고 대, 일반 남녀
체육관련 입시, 검도사범 지망생 특별지도
검도 7단 김 태 경(빈첸시오)
☎ 전북의대입구 246-8009
서신2지구 272-3541
효자동 화랑관 223-6655

휘슬러 압력밥솥

웨스턴 제빵기
오메가 주서기
위터픽 전동칫솔
수입완제품 판매 및 AS
☎ (063) 245-1301/241-1303

새천년(구육교) 안경원

시력 검사 및 누진다초점렌즈
색맹, 색약 렌즈 전문 취급점
교우 특별 우대
정 현 모(다미아노)
육 영 수(비비안나)
전주 완산구 삼천동 흥천A 2차상가내
☎ (063) 226-8188

확장 이전개업 동서로 삼익피아노

김 태 우(일공소)
황 진 숙(안젤라)
평화동 사거리 세전컴퓨터 맞은편
☎ (063) 226-7717

* 가족과 함께 볼만한 비디오 *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 3부/각 20분/20,000원>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일생을 성서말씀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비디오이다. 그림에 대한 의미와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다.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고

예비신자 교리 교육, 피정 모임, 성서교육을 위한 시청각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 12분/15,000원>

화가 램브란트의 그림을 통하여 루가복음 15장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묵상하도록 도와준다. 그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비디오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허리를 굽혀 끌어안고 아무 죄를 묻지 않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한다.



- * **아중성당 전화번호 변경** : 사제관 244-2268
- * **정정내용** : 지난 7/9일자 '궁금해요'란에 대사(代敎) 한문표기가 잘못되어 대사(大赦)로 바로 잡습니다

■ 익산남지구 본당소식 ■

송학동 주임신부 851-5340 사 무 실 841-9713 주임신부 김 태 운
F A X 856-8744 수 너 원 855-6931 사목회장 오 봉 의

- ◎ 나눔과 친교를 통한 희망의 공동체
- ◎ 금주는 여름신앙학교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개인별 후원금도 접수 받습니다
- 1. 금주 모임 : 반석회, 올뜨레야 - 공식미사 후
- 2. 주간 모임 : ① 제대회 - 18일(화) 전 10시
② 미리암회, 성모회 - 19일(수) 미사 후
③ 성체조배 - 매주 금요일 전 11시~후 6시
- 3. 차주 모임 : 스승예수회 - 공식미사 후
- 4. 예비신자 교리 : 매주 목요일 미사 후 * 매주 주일 전 9시
(성인교리반 신설, 중고등부 학생포함) 적극적인 활동바람
- 5. 여름신앙학교 : 초등부 - 24일(월)~26일(수), 27일(목) - 4~6학년 물놀이
중고등부 - 22일(토)~24일(월),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6. 감사 헌금 : 애령회(교리교사실 배려금 기증), 가나회(본당차량
유지비 50만), 한병용 30만, 송승인 5만 * 감사합니다
- 7. 금주 청소 : 사랑하오신 모친(계단 복도), 즐거움의 원천(성당)
- 8. 금주 전례 : 해설 - 광경표, 독서 - 정진관, 소은이
- 9. 차주 전례 : 해설 - 소국현, 독서 - 임경재, 김경숙
- 지난주 봉헌금 : 1,435,050원 □ 교무금 : 1,310,000원

신 동 주임신부 854-6313 사 무 실 854-1827 주임신부 정 종 현
수 너 원 854-2636 사목회장 조 영 단

- ◎ 중고등부 신앙학교 : 20일(목)~23일(주일) 후 4시
초등부 어린이 성경학교 - 24일(월) 전 9시
중고 하계 수련회 - 24일(월) 지리산
* 여름신앙학교를 위하여 찬조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 금주간 성서읽기 : 아가 7장~이사야 32장
- 1. 오늘은 교무금, 성소 후원금, 사랑의 다리 봉헌주일
- 2. 주간 모임 : ① M.E. 모임 - 17일(월) 8시, 별관 회합실
② 보스코 모임 - 17일(월) 후 7시 30분, 덕성 불령장
③ 다윗 풍물 모임 - 18일(화) 후 2시, 별관
④ 제대회 - 19일(수) 저녁미사 후
⑤ 신교 위원모임 - 20일(목) 저녁미사 후
- 3. 차주 모임 : ① 등산 - 모악산(금산사쪽) 성당 후 1시출발
② 요셉회 - 공식미사 후
- 4. 금주 전례 : 해설 - 이주철, 독서 - 하인석, 함경신
봉헌 - 신동 6구
- 5. 차주 전례 : 해설 - 채만기, 독서 - 김석근, 마하사
봉헌 - 신동 7구
- 6. 본당 청소 : 자비의 모후, 황금의 궁전, 착한 의견의 어머니 Pr.
- 7. 차량 봉사 : 금주 - 김봉철(요셉), 차주 - 서정원(베드로)
- 8. 감사 헌금 : 박홍기 10만, 김영자 3만
- 지난주 봉헌금 : 1,194,570원 □ 교무금 : 1,340,000원

어망동 주임신부 833-4052 사 무 실 831-4050 주임신부 권 규 불
F A X 831-4051 수 너 원 831-4060 사목회장 박 기 배

- ◎ 성전건립 위한 목주기도 : 지난주 봉헌 - 35,900단
현재 누계 - 2,025,553단
- ◎ 영세식(외떡 교우반) : 18일(화) 후 7시 30분 미사 중
* 영세자와 대부모께서는 7시까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람
-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22일(토) 전 9시~5시 10분
참가비 - 1천, 신청 - 주일학교 선생님과 사무실
*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람
- ◎ 김 막달레나 수녀님 축일 : 22일(토) *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금주 모임 : ① 빈첸시오회, M.E. 모임 - 오늘 10시
② 전례자모임 - 오늘 교중미사 후
③ 성모회 - 19일(수) 10시미사 후
④ 올뜨레야 - 다음주일 미사
- 2. 차주 전례 : 10시, 해설 - 오경자, 독서 - 성낙인, 조연희
교중 해설 - 강현숙, 독서 - 김현수, 김보순
- 3. 감사 헌금 : 윤경희 50만 * 감사합니다
- 4. 청소 : 22일(토) - 다윗의 탑 Pr. 12구역(주공 2차A)
- 지난주 봉헌금 : 1,404,160원 □ 교무금 : 1,792,000원
- 성전건립 2차헌금 : 735,950원

팔 봉 주임신부 835-2977 사 무 실 835-2976 F A X 835-2976 주임신부 김 훈 사목회장 이 용 배

- ◎ 하느님을 믿고 미래를 희망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 ◎ 대회전 목주기도 3역단 바치기 운동 :
2000년 6월 25일~2001년 1월 5일까지
* 기도지향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새천년기 새복음화를 위하여
집계보고 - 사무실로 해주세요
- 1. 금주 모임 : 모니카회 - 교중미사 후
- 2. 중고 여름신앙학교 : 24일(월)~26일(수), 국제산장 참가비 - 1만
- 3.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 30일(주일)~8월 1일(월), 본당
*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과 교육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신앙학교를 위한 찬조금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영등동 주임신부 854-2202 사 무 실 852-2240 주임신부 범 영 배
수 너 원 852-2238 사목회장 황 호 결

- ◎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가 24일(월)부터 시작됩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 바랍니다
- ◎ 차주 : 여름 신앙학교 2차헌금 실시
- 1. 금주 모임 : ① 밀알회, 베드로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청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③ 성심회 - 18일(화) 전 10시
④ 여성분과 - 18일(화) 전 11시
- 2. 차주 모임 : 요셉회, 성모회, 안나회, 성가대 율례회 -
23일(주일) 공식미사 후
- 3. 기타 모임 : 사목회 - 25일(화) 저녁미사 후
- 4.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재 - 새하늘 새 땅
교리 - 24일(월)~28일(금) 전 9시~12시, 물놀이 - 29일(토)
- 5. 중고등부 도보 성지순례 : 27일(금)~29일(토)
주재 - 님의 숨결 느끼며
- 6. 금주 전례 : 해설 - 광영애, 독서 - 이천우 부부
보편지향기도 - 서용석 부부
- 7. 차주 전례 : 해설 - 김정남, 독서 - 최종일 부부
보편지향기도 - 전일배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744,800원 □ 교무금 : 2,215,000원

주현동 주임신부 854-9030 사 무 실 855-3993 주임신부 나 궁 열
수 너 원 857-5522 사목회장 김 성 현

- 1. 금주 성서 읽기, 성서 필사 : 느헤미야 1장~13장
- 2. 오늘 청소년 여름 신앙 교육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극적인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 찬조금도 접수합
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3. 오늘 모임 :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반석회
- 4. 초등부 여름 신앙 캠프 : 22일(토)~24일(월), 신청 - 교사, 사무실
익성 청소년 수련원, 집결 - 성당으로 전 9시 30분까지
- 5. 청년회 여름 캠프 : 29일(토)~30일(주일), 전주 송광 야영장
- 6. 청소년 사목회 : 19일(수) 후 7시 30분
- 7. 감사합니다 : 이성우(라파엘), 김광수(우한) 각 10만
박대원(안드레아), 최안나 각 5만
- 8. 성전 보수 채무 1억 상환 운동 : 세대별 분담금을 아직 봉헌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형편상 완납이 어려운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분담금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봉헌 총 누계 - 80,132,592원)
- 지난주 봉헌금 : 1,621,460원 □ 교무금 : 1,400,000원

창인동 주임신부 858-4722 사 무 실 858-4721 주임신부 황 인 규
보좌신부 858-4723 수 너 원 858-4724 보좌신부 박 종 남
유 치 원 858-4725 사목회장 노 효 섭

- ◎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 여름 신앙학교를 위한 2차헌금이 있음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23일(주일)~24일(월), 수류야영장
- 1. 오늘 모임 : ① 올뜨레야, 성소자 부모님 모임 - 교중미사 후
② 재속형제회 - 후 2시 2시간 모임 : ① 창인 산악회 - 17일
(월) 전 8시 30분, 지리산 피아골 ② 애령회 율례회 - 19일(수)
어머니 미사 후 ③ 모니카회 - 21일(금) 전 11시 30분
④ 대전회, 윤호희 단합대회 - 23일(주일) 전 9시, 춘장대 해수욕장
- 2. 차주 전례 : 해설 - 최경희, 독서 - 김종원 부부, 봉헌 - 공덕
- 3. 요셉회 단합대회 : 19일(수) 전 8시 30분, 구천동 계곡
- 5. 감사합니다 : 송미자 2만, 국중현 1만
- 6. 예비신자 입교식 : 8월 6일(주일) 교중미사 중
* 각 구역장, 신심 단계장 및 Pr. 단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바람
- 7. 성서 교실이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매주 토요일 전 10시 30분, 강당
- 8. 다음 주일은 교무금 봉헌 주일입니다. 교무금을 월별로 봉헌하여
본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510,360원 □ 교무금 : 1,180,000원

- 4. 전신자 물놀이 : 8월 3일(목), 운장산 계곡 신청비 - 1만(교통비),
신청접수 - 사무실
- 5. 상반기 전입 가정 환영합니다 : 당산 - 문전회(베드로)가정
용제동 - 차정회(율리아) 가정
- 6. 성당 청소 : 금주 - 장목, 차주 - 용제동
- 7. 감사 헌금 : 익명 5만 * 감사합니다
- 8. 병자 봉성체 : 19일(수)
* 환우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연락주십시오
- 9. 금주 전례 : 해설 - 박영자, 독서 - 권충도, 정연순
- 10. 차주 전례 : 해설 - 권충도, 독서 - 문전회, 박순자
- 지난주 봉헌금 : 257,200원 □ 교무금 : 240,000원